국외출장보고서

출장기간: 2019.11.16.(토) - 11.17.(일)

출장국가: Germany/Frankfurt

출장자: 박갑동(교수)



I. 출장 개요

- 출장 목적
 - 재독과협 프랑크푸르트지역 학술대회 참석
 - 한-EU 학연협력 과제 중간 발표회 및 간담회
- 출장 기간 : 2019.11.16 11.17(1박 2일)
- ㅇ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
 - (독일) 괴테대학 내 MPI Biophysics
- 출장자 인적사항

부서	직위	이름	수행역할 요약
교육혁신팀	교수	박갑동	과제 총괄

Ⅱ. 출장 내용

- 재독과협 6지역(Frankfurt 인근) 학술대회 및 발표
 - 11. 16(토) 15 00 18 00 : 한-EU 학연협력 비교, BT 최근 연구 동향
 - 안현섭 박사(재독과협 간사), 신동혁 박사(MPI Biophysics) 외 15명
- EU/독일 학연협력 현황 비교 간담회
 - 11. 16(토) 18 30 21 30 : 학생연구원 및 포닥 연구/교육 현황
 - 신동혁 박사, 이용찬 박사, 김린호 박사(MPI Biophysics), 윤송학 박사 (Fraunhofer IWKS), 엄수현 박사(Leibniz Ins. of Konsantz), 임한솔(박사과정), 김혜아(박사과정), 허준화(박사과정) 외 5명

Ⅲ. 시사점 및 특이사항

0 시 사 점

- 한국에서 대학원보다 외국 유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, 대부분 불합리한 현실 때문임. 실력이 낮거나 군 면제가 절실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, 대부분 동남아 학생들이 채우는 사례가 증가.
- 군대를 면제 받거나 지도교수의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지원함. 최 근 군면제 혜택 폐지 논의로 갈등이 증가했음
- 입학 전단계의 접촉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차원이 달랐음. 열린 사전 소개, 면담 인터뷰, 실험실 구성원 소개, 각종 지원 및 혜택 소 개 등 학생을 중심으로 고려해 주었음
- 교수와 학생연구원, 동료들 간의 대등한/동등한 관계가 가장 좋았고, 박사 과정생들을 독립적인 연구자로 대해 주었음. 작은 연구과제를 부여하거나 본인의 역할을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통해 결정하였고, 진행과정에 다양한 도움과 의견을 주었음
- 교수, 연구원, 학생연구원들의 실력이 서서히 잘 드러나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 능력 개발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토론과 소통을 게을리 할 수 없는 분위기. 토론하고 따지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히 자신의 생각과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.

○ 특이사항

- IMPRS 프로그램의 학생연구원은 대부분 처우가 비슷하지만 다른 연구회 소속이나 일반 대학원생의 처우는 기본 처우 외에 인건비 및 연구 여건에서 기관마다 차이. 인건비의 경우 정규 신입연구원의 50% 100%로 다양함
- 민간 기업연구소 학생연구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가 꽤 많다고 함. 기업의 연구 주제와 공공연구소의 연구 주제가 맞는 경우에 기업 소속 직원을 학생연구원으로 보내서 산학연 공동협력과제를 마련하여 진행함. 우리의 재교육형 계약학과와 유사하나 절차나 요건은 매우 간편함.(예전 의 논문박사와 유사하나 실제 연구 경쟁력은 일반학생들과 차이기 없음)